

# 무소유 실천해야 비로소 사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16일 해남 대흥사에 마련된 천운 스님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불교의 미래 위해 신도교육 강조

스님이 포교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신도교육이었다. 새 신도에게 기초 교리강좌는 물론이고 광주 불교대학과 광주불교대학원을 설립, 신도를 교육하는 한편 포교사 육성에 힘을 기울여 전국포교사단 광주전남지단의 활성화와 함께 향림사를 호남지역 포교전진기지로 만들었다. 또 전남지방경찰청 경승실장과 광주교도소 교화위원회 불교회장 소임을 맡아 경찰 및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쳐 사회의 어두운 곳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비추는 역할도 수행해 왔다.

복지포교분야에 역점을 둔 스님은 1983년 향림유치원, 1994년 향림사어린이집, 1996년 해남 한들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는 등 복지사업에 헌신해 어린이 포교와 함께 1992년에는 광주지역 우산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모범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에서 불교위상을 높여왔다. 이외에도 인근 군부대들을 중심으로 군포교에도 관심을 가져 많은 군부대를 배출했으며 종립 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직을 맡아 교육사업에도 헌신했다. 스님은 향림사에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생활 속 불교를 실현하기도 했다. 이후 광주불교대학, 대학원, 향림출판사 등을 세워 향림사를 호남 포교의 중심지로 세웠다.

스님의 원력은 1994년 불교광주방송 설립으로 이어졌다. 1996년에는 광주지역 2000여 학생이 참가한 대규모수계법회가 열려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님의 이 같은 공을 종단에서도 인정해 스님은 두 차례 포교대상을 수상 했다. 또 2001년 조계종

사회복지대상 특별상, 2002년 제1회 전국 교정인의 날 국민포장을 휩쓸었다.

### #정성 다해 아이들 보살님 천진불

천운 스님은 향림사에서 아이들 교육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스님은 이곳에서 수행과 포교를 하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다. 스님은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부처 키우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하며 무럭무럭 자라도록 보살폈다. 스님에게 아이들은 부처며 화두였다. 스님은 힘닿는 대로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는 등 뒷바라지에 정성을 쏟았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줄 뿐 특별히 강요하는 것도 없었다. 유난히 말쑥을 피우는 아이가 있으면 행동이 달라질 때까지 스님 방에서 재우며 키웠다. 40년 동안 이렇게 스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150여 명에 이른다.

스님은 엄격하면서도 매우 유머가 넘치는 분이였다. 수행자로서 혹은 종단의 큰 스님으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젊은이들 만나면 젊은이의 말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고 천진하게 굴었다. 이 때문에 엄격하다는 소문에 잔뜩 겁을 먹은 재가자들이 스님의 우스갯소리에 어리둥절해 하거나 금세 마음이 풀어져 편안하게 대했다고 스님을 만난 이들은 한결 같이 입을 모은다.

스님은 또 평생 무소유의 정신을 따랐다. 스님은 생전에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간단한 일인데 너무 욕심

이 많아 제대로 못 보는 것"이라며 수행자 뿐만 아니라 재가자들에게 욕심 없는 삶을 강조했다.

### #"수행자 본분 지키라" 강조

천운 스님의 법문은 쉬우면서 직설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님은 늘 불교의 연기 사상에 입각하면서 누구나 생활과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원칙을 갖고 불교를 설명하고 가르침을 내렸다. 늘 화내지 말고 남의 말 잘 듣고 힘담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수행이라며 남 탓 하지 말고 스스로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했다. 천운 스님은 철저한 수행자였으며 부처님의 율곡은 제자였다. 출가한 이래 조석예불 드리는 것을 거른 적이 없었으며 새벽 3시엔 어김없이 일어나 6시 까지 정선하고 예불 모시고 좌선, 염불, 다라니까지 빠뜨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6시 15분 아침 공양을 마치고 1시간 동안 포행을 하고 나면 출타 여가다리는 신도들을 만나 친절히 상담했다. 점심공양 후에는 광주불교대학, 사무실, 복지관, 정광학원, 향림원 등을 돌아보는 생활을 일찍 전 까지 어진 적이 없었다.

스님은 입적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긴 유훈에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 이게 곧 불교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라는 부처님의 '칠불통게(七佛通偈)'를 강조했다. 수행자의 본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던 평생의 가르침을 가시는 길에도 불자들에게 세 사감 강조했다.

정리=조동섭 기자

### #다시 듣는 천운 스님의 법문

올해도 어김없이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습니다. 금년이 불기(佛紀) 2550년이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해를 기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80년을 사셨으니 부처님 오신지 어언 2630년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도에서 태어나신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 전해진 것은 여러 나라와 중국을 거쳐 오게 되었고,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을 거쳐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되었습니다.

본래 인도 왕족이었던 허 황후가 서기 48년 불상을 모시고 뱃길로 가야에 온 것은 화계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승려였던 마라나타 존자가 384년 법성포로 들어와 포교를 시작했고, 이로써 화려했던 백제불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에 한라산 영실에 존자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 제자였던 발타라 존자가 한라산에서 수행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부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1600년 전 중국을 거쳐 고구려(372년 소수림왕 2년)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2600년 전 부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불교는 부처님 열반이후 부처님 제자가 그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는 진인(眞人)불교였습니다.

고구려 이전, 이 땅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한문으로 쓰여진 경전에 의존하기보다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인 진인불교였을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맞이하는 초파일에 진인불교를 생각해봅니다. 문자에 갇혀있는 불교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불교를 말합니다.

36년 전, 광주에 향림사를 창건할 당시 주위에서 모두들 말렸습니다. 나무 하나 없이 민가와 함께 있는 절에 누가 오겠냐고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산속에 계시지 않았고, 길에서 나서서 길에서 가르침을 퍼셨고 길에서 가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속세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바꾸었고, 뜻 모르는 경전을 읽기보다 찬불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참선만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돌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향림사에는 오래전부터 오갈 데 없는 노인과 장애인, 고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절과 복지시설에서 먹고 자는 대중이 150여 명에 이릅니다. 신도들의 보시와 봉사료 이체껏 한번도 굶지 않았고, 누구에게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에서 조선시대는 참으로 곤혹스런 시대였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선지식들의 간절한 수행과 포교로 불교의 맥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힘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흔하디 흔하디 불교라고 하지만 어머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불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선을 한다고 앉지도 못했고, 글을 모르기에 경전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들의 입에서는 한시도 염불과 주력이 끊이지 않았습다.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나무아미타불' 하며 손가락하나 더 놓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인불교입니다.

참선, 염불, 주력, 포교, 가람수호는 오늘의 불자들이 행해야 할 5대수행입니다. 불자라면 이 가운데 하나라도 선택해 간접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짓는 구업(口業)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입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천수경> 십악참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하는데 망어(妄語), 기어(綺語), 양설(兩舌), 악구(惡口) 등 4가지가 바로 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업을 막는 방법으로 염불과 주력이 최고입니다.

공부를 했고 안했다고 화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보려면 얼마나 화를 내지 않는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내고 보면 모든 허물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남을 원망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입으로 진실된 말을 하고, 자비실천을 수행하면 성내는 마음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은 초파일과 어린이날이 겹쳤습니다. 어린이는 마음에 때가 없이 순수합니다.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싸우거나, 못살겠다며 부정적인 말을 해서선 안됩니다. 아이들에게 남을 원망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입으로 진실된 말을 하고, 자비실천을 수행하면 성내는 마음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파일을 맞아 진인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한 부처님의 가르침(七佛通偈)을 소개합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自淨其意 是諸佛敎) :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 이것이 곧 불교다  
-천운 스님의 불기2550년(2006년) 광주 향림사 봉축법문 중에서

그대 곁에 두어라. 어쩌면 그대 옛 추억 누이를 닮은 슬프도록 아름다운 우리 야생화!

## 산야초 분재도감



“소박 청초한, 때로는 놀라우리만치 강렬하고 요염한, 자연 미학의 또 다른 정점에 선 이 땅의 각종 야생화에 대한 생태와 특징, 분포, 번식법 및 화분 재배법까지 생생한 원색사진을 곁들여 안내하고 있으며 기호에 따라 개화(開花)순으로 식재함으로써 다채로운 순환 관상이 가능하도록 한국 내 초유의 야생화분재 종합지침서!”

- 한국야생화연구회 편/ 울결리/ 국배판/ 전2권/ 총420쪽/ •보급가 10만원(정가 148,000원)

아래로 연락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 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T.02-2618-0700, 070-8811-5775 F.032-348-1240 학술편수관

### 식물병해충도감 [전단과 병제]

- 수목·과수·화훼·채소·기타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편/ 울결리/ 4\*6배판/ 전2권/ 총880여쪽/ 보급가 12만원(정가 16만원)

### 작물병해충방제도감

- 과수·채소·기타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편/ 울결리/ 4\*6배판/ 530여쪽/ 보급가 68,000원(정가 85,000원)

“각종 식물 및 원예작물 전반의 주요 병·해충별 증상과 생태, 예방 방제법 및 검증된 적용약제 등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 각종 재배 및 식물보호 현장의 생산성 극대화를 실현케 한 독보적 교본!!”

##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이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범이 범의의식을 진정된 염불로 마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庚寅 仲夏 편집인 日江 합장



###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2,000원



###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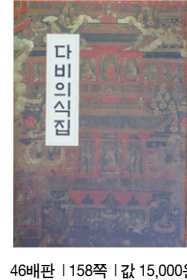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 다비의식집 (2010신간)

누구나 간결히 기다리면 의식집, 송가다비법과 재가다비법이 일찍 후 처음으로 신심을 말하는 순서부터 화랑매달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 그밖에 도서목록 -

- 영혼과 운명의 비밀(365쪽)
- 불교종합의식집(393쪽)
- 한국 한양군 전통의식집(225쪽) 등이 있다.
- 구입문의: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중